

글을 읽는다는 것

이상원*

글쓰기에 도움이 될 만한 교재나 참고 도서를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가 있다. 난감한 일이다. 단번에 글쓰기 능력을 높여주는 교재나 참고 도서는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기 때문이다. 하루가 멀다고 쏟아져 나오는 글쓰기 관련 서적을 남김없이 살펴보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글쓰기 방법을 쉽게 터득하도록 해주는 책은 애초부터 있을 수 없다고 여길 뿐이다. 글쓰기에는 왕도가 없다. 지름길도 없다. 생각하고 쓰고 다시 생각하고 고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나갈 수 있을 뿐이다. 편안하게 등을 기대고 앉아 느긋하게 남의 설명을 듣는 식으로는 글쓰기 능력을 연마하지 못한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글을 잘 쓰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직접 쓰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루를 보내면서 보고 느낀 것에 대해, 읽은 책이나 감상한 영화에 대해, 수업시간에 듣고 흥미로웠던 주제에 대해 일단 써보고 그 다음에 글을 다시 읽거나 친구에게 보여주거나 익명의 다수에게 공개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고치고 보태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

내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옮기기 시작하면 남들은 어떻게 썼는지 궁금해지게 마련이다. 자연히 글을 쓰는 중간중간에 남의 글을 기웃거리게 된다. 남들은 같은 주제나 같은 형식의 글을 어떻게 썼는지, 그렇게 남들의 글들을 찾아보고 내 방식과 비교도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다시 생각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인문학 글쓰기 전임대우강사.

해보면 남의 글을 기웃거리려는 일은 내가 글을 쓰는 과정 중에만 일어나지는 않는다. 내가 쓰는 글은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글을 본보기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이 글쓰기에도 적용되는 셈이다.

이렇게 보면 모든 책, 모든 글이 글쓰기에 도움을 주는 참고 자료가 된다. 그 중에는 따라가야 할 길을 가리켜 보여주는 참고 자료도, 타산지석 역할을 하는 참고 자료도 있을 것이다. 무수히 다양한 남의 글, 굳이 찾으려 들지 않아도 주위에 넘쳐나는 이 글들이 결국 내 글쓰기를 위한 교사이자 교재이다. 그러기에 눈을 크게 뜨고 남의 글을 읽는 습관이 내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된다.

눈을 크게 뜨고 남의 글을 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글쓴이에게 휘둘리지 않는 비평자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글이 담은 내용, 그리고 글이 짜인 형식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글에서 마음에 드는 점과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을 찾아내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궁리해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살면서 접하는 글이 너무 많아서인지 우리는 수동적인 독자로 글을 읽기 쉽다. 빨리빨리 읽어 내려가면서 '아, 그렇군' 하고 생각하고는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식이다. 글쓴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는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동원했는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서는 그 글을 읽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 글을 내 글쓰기를 위한 바탕으로 삼기는 더더욱 어렵다.

내가 생각하는 '눈 크게 뜨고 남의 글 읽기'의 방법은 이렇다. 새로운 글과 만나면 일단 한번 죽 읽어본 후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본다. 금방 정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다 읽었는데도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다시 읽어보아야 한다. 가능하다면, 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내게 감잡히지 않았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면 더욱 좋다.

두 번째로 읽을 때에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기 위해 글쓴이가

탁한 구조를 살핀다. 각 문단의 핵심 내용을 찾아 연결해보면 대체로 글의 구조가 나온다. 소제목이 달린 글이라면 소제목을 연결해볼 수도 있다. 다음은 그 구조가 효과적이었는지, 구조가 내용 이해를 방해하지는 않았는지,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식의 수정이 가능할지를 생각해볼 차례이다.

미시적인 차원에서든 눈을 크게 뜰 필요가 있다. 문법에 어긋난 문장이나 표현이 나왔다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맞춤법이 쓰였다면 무엇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볼 일이다. 또한 마음에 쏙 드는 문장이나 표현은 유심히 보아둔다. 언젠가 내 글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다.

여기까지 읽고 나면 ‘아니,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는 글은 몇 안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어떤 글이든 다를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정보 전달을 위주로 하는 보도문이라면 핵심 정보가 무엇이며 그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 어떠했는지를 살피면 된다. 반면 자기주장을 펴는 글이라면 핵심 주장을 생각해보고 그 주장이 전개된 방식을 짚으면 될 것이다. 「대학신문」을 비롯해 자주 펼쳐보는 신문 의 기사나 칼럼, 심심풀이로 읽는 소설, 전공 서적이거나 논문, 인터넷에서 보게 되는 댓글이나 개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글, 교정에서 동료 학생들이 나누어주는 낱장 종이의 글(속칭 ‘지라시’(Chirashi))까지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혹은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읽기 시작하면 가슴 뭉클한 감동은 사라지고 차가운 분석만 남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수도 있다. 남의 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는다는 건 정말이지 멋진 경험이다. 하지만 감동받은 마음은 그대로 놓아둔 채 내가 감동받은 이유를 찾아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감동이 크면 클수록 나 역시 언젠가는 그렇게 감동적인 글을 쓰고픈 바람이 강하지 않을까. 그러자면 그 글의 어떤 부분이 내게 감동을 주었는지 살펴볼 일이다.

세상살이에서 만나는 사람 모두가 스승이라고 한다. 살면서 읽게 되는

글 역시 모두가 내 글쓰기 교사요, 교재이다. 하지만 그 어떤 글도 글쓰기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정답을 알려주지는 않는다. 한편으로는 아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나는 일이기도 하다. 눈을 크게 뜨고 남의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점은 취하고 그렇지 않은 점은 가지 않아야 할 길로 기억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나만의 글쓰기 정답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